

장성군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박차

광양시·장흥군과 함께
여가부 '여성도시' 지정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

5개 분야 정책·인프라 구축

장성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 받았다. 광양도 여성친화도시 인증 지역에서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제2차 심사서 탈락했던 장흥도 재지정됐다. 나주는 장성·광양과 함께 신청서를 냈지만 탈락했다.

장성은 '성평등 명품도시'를 내걸고 여성친화적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등 '여성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갖추는데 공을 들인다는 구상이다.

장성·광양, 여성친화도시로=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총 30개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전남에서는 장성, 광양이 신규 지정 대상지로 뽑혔고 장흥도 이름을 올렸다. 장흥의 경우 지난 2011년 지정됐다가 작년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탈락한 뒤 이번 심사서 재인증됐다. 장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도전개에 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펼치는 도시를 뜻한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저출산과 도심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속앓이를 하는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인증에 나서는 이이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11월 공모하고 인증요건을 충족한 도시를 선정하면 5년간 여성친화도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심사 결과를 포함, 전국에서 86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장성은 또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소통방 운영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 건강한 장성과 소통하는 장성을 위한 정책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양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넉넉한 광양 ▲편하고 안전한 광양 ▲가족이 행복한 광양 ▲참여하는 광양을 목표로 6개 영역에서 18개 정책 과제와 66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광양도 내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19~2020년 지역특화 사업 추진 및 유형별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2021~2022년 여성친화거리 조성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모든 영역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장성·광양, 여성친화도시로=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총 30개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전남에서는 장성, 광양이 신규 지정 대상지로 뽑혔고 장흥도 이름을 올렸다. 장흥의 경우 지난 2011년 지정됐다가 작년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탈락한 뒤 이번 심사서 재인증됐다. 장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도전개에 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펼치는 도시를 뜻한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저출산과 도심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속앓이를 하는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인증에 나서는 이이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11월 공모하고 인증요건을 충족한 도시를 선정하면 5년간 여성친화도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심사 결과를 포함, 전국에서 86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장성은 또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소통방 운영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 건강한 장성과 소통하는 장성을 위한 정책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양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넉넉한 광양 ▲편하고 안전한 광양 ▲가족이 행복한 광양 ▲참여하는 광양을 목표로 6개 영역에서 18개 정책 과제와 66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광양도 내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19~2020년 지역특화 사업 추진 및 유형별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2021~2022년 여성친화거리 조성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모든 영역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장성·광양, 여성친화도시로=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총 30개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전남에서는 장성, 광양이 신규 지정 대상지로 뽑혔고 장흥도 이름을 올렸다. 장흥의 경우 지난 2011년 지정됐다가 작년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탈락한 뒤 이번 심사서 재인증됐다. 장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도전개에 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장성군은 지난 7월 여성친화군민참여단을 발족,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에 남여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펼치는 도시를 뜻한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저출산과 도심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속앓이를 하는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인증에 나서는 이이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11월 공모하고 인증요건을 충족한 도시를 선정하면 5년간 여성친화도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심사 결과를 포함, 전국에서 86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장성은 또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소통방 운영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 건강한 장성과 소통하는 장성을 위한 정책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양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넉넉한 광양 ▲편하고 안전한 광양 ▲가족이 행복한 광양 ▲참여하는 광양을 목표로 6개 영역에서 18개 정책 과제와 66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광양도 내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19~2020년 지역특화 사업 추진 및 유형별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2021~2022년 여성친화거리 조성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모든 영역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장성·광양, 여성친화도시로=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총 30개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전남에서는 장성, 광양이 신규 지정 대상지로 뽑혔고 장흥도 이름을 올렸다. 장흥의 경우 지난 2011년 지정됐다가 작년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탈락한 뒤 이번 심사서 재인증됐다. 장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도전개에 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펼치는 도시를 뜻한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저출산과 도심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속앓이를 하는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인증에 나서는 이이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11월 공모하고 인증요건을 충족한 도시를 선정하면 5년간 여성친화도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심사 결과를 포함, 전국에서 86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장성은 또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소통방 운영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 건강한 장성과 소통하는 장성을 위한 정책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양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넉넉한 광양 ▲편하고 안전한 광양 ▲가족이 행복한 광양 ▲참여하는 광양을 목표로 6개 영역에서 18개 정책 과제와 66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광양도 내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19~2020년 지역특화 사업 추진 및 유형별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2021~2022년 여성친화거리 조성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모든 영역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장성·광양, 여성친화도시로=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총 30개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전남에서는 장성, 광양이 신규 지정 대상지로 뽑혔고 장흥도 이름을 올렸다. 장흥의 경우 지난 2011년 지정됐다가 작년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탈락한 뒤 이번 심사서 재인증됐다. 장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도전개에 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펼치는 도시를 뜻한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저출산과 도심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속앓이를 하는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인증에 나서는 이이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11월 공모하고 인증요건을 충족한 도시를 선정하면 5년간 여성친화도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심사 결과를 포함, 전국에서 86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장성은 또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소통방 운영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 건강한 장성과 소통하는 장성을 위한 정책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양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넉넉한 광양 ▲편하고 안전한 광양 ▲가족이 행복한 광양 ▲참여하는 광양을 목표로 6개 영역에서 18개 정책 과제와 66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또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소통방 운영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 건강한 장성과 소통하는 장성을 위한 정책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양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넉넉한 광양 ▲편하고 안전한 광양 ▲가족이 행복한 광양 ▲참여하는 광양을 목표로 6개 영역에서 18개 정책 과제와 66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광양도 내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19~2020년 지역특화 사업 추진 및 유형별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2021~2022년 여성친화거리 조성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모든 영역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장성·광양, 여성친화도시로=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총 30개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전남에서는 장성, 광양이 신규 지정 대상지로 뽑혔고 장흥도 이름을 올렸다. 장흥의 경우 지난 2011년 지정됐다가 작년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탈락한 뒤 이번 심사서 재인증됐다. 장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도전개에 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펼치는 도시를 뜻한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저출산과 도심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속앓이를 하는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인증에 나서는 이이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11월 공모하고 인증요건을 충족한 도시를 선정하면 5년간 여성친화도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심사 결과를 포함, 전국에서 86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장성은 또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소통방 운영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 건강한 장성과 소통하는 장성을 위한 정책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양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넉넉한 광양 ▲편하고 안전한 광양 ▲가족이 행복한 광양 ▲참여하는 광양을 목표로 6개 영역에서 18개 정책 과제와 66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광양도 내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19~2020년 지역특화 사업 추진 및 유형별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2021~2022년 여성친화거리 조성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모든 영역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장성·광양, 여성친화도시로=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총 30개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전남에서는 장성, 광양이 신규 지정 대상지로 뽑혔고 장흥도 이름을 올렸다. 장흥의 경우 지난 2011년 지정됐다가 작년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탈락한 뒤 이번 심사서 재인증됐다. 장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도전개에 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펼치는 도시를 뜻한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저출산과 도심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속앓이를 하는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인증에 나서는 이이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11월 공모하고 인증요건을 충족한 도시를 선정하면 5년간 여성친화도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심사 결과를 포함, 전국에서 86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장성은 또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소통방 운영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 건강한 장성과 소통하는 장성을 위한 정책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양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넉넉한 광양 ▲편하고 안전한 광양 ▲가족이 행복한 광양 ▲참여하는 광양을 목표로 6개 영역에서 18개 정책 과제와 66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광양도 내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19~2020년 지역특화 사업 추진 및 유형별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2021~2022년 여성친화거리 조성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모든 영역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장성·광양, 여성친화도시로=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총 30개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전남에서는 장성, 광양이 신규 지정 대상지로 뽑혔고 장흥도 이름을 올렸다. 장흥의 경우 지난 2011년 지정됐다가 작년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탈락한 뒤 이번 심사서 재인증됐다. 장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도전개에 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펼치는 도시를 뜻한다.

여성친화도시, 우리가 만들어 가야할 미래

장성군은 또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소통방 운영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 건강한 장성과 소통하는 장성을 위한 정책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양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넉넉한 광양 ▲편하고 안전한 광양 ▲가족이 행복한 광양 ▲참여하는 광양을 목표로 6개 영역에서 18개 정책 과제와 66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광양도 내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19~2020년 지역특화 사업 추진 및 유형별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2021~2022년 여성친화거리 조성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모든 영역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장성·광양, 여성친화도시로=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총 30개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전남에서는 장성, 광양이 신규 지정 대상지로 뽑혔고 장흥도 이름을 올렸다. 장흥의 경우 지난 2011년 지정됐다가 작년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탈락한 뒤 이번 심사서 재인증됐다. 장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도전개에 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펼치는 도시를 뜻한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저출산과 도심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속앓이를 하는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인증에 나서는 이이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11월 공모하고 인증요건을 충족한 도시를 선정하면 5년간 여성친화도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심사 결과를 포함, 전국에서 86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장성은 또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소통방 운영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 건강한 장성과 소통하는 장성을 위한 정책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양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넉넉한 광양 ▲편하고 안전한 광양 ▲가족이 행복한 광양 ▲참여하는 광양을 목표로 6개 영역에서 18개 정책 과제와 66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광양도 내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19~2020년 지역특화 사업 추진 및 유형별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2021~2022년 여성친화거리 조성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모든 영역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장성·광양, 여성친화도시로=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총 30개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전남에서는 장성, 광양이 신규 지정 대상지로 뽑혔고 장흥도 이름을 올렸다. 장흥의 경우 지난 2011년 지정됐다가 작년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탈락한 뒤 이번 심사서 재인증됐다. 장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도전개에 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펼치는 도시를 뜻한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저출산과 도심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속앓이를 하는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인증에 나서는 이이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11월 공모하고 인증요건을 충족한 도시를 선정하면 5년간 여성친화도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심사 결과를 포함, 전국에서 86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장성은 또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소통방 운영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 건강한 장성과 소통하는 장성을 위한 정책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양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넉넉한 광양 ▲편하고 안전한 광양 ▲가족이 행복한 광양 ▲참여하는 광양을 목표로 6개 영역에서 18개 정책 과제와 66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광양도 내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19~2020년 지역특화 사업 추진 및 유형별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2021~2022년 여성친화거리 조성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모든 영역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장성·광양, 여성친화도시로=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총 30개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전남에서는 장성, 광양이 신규 지정 대상지로 뽑혔고 장흥도 이름을 올렸다. 장흥의 경우 지난 2011년 지정됐다가 작년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탈락한 뒤 이번 심사서 재인증됐다. 장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도전개에 친화도시로 선정됐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축제가 열리고 있는 담양 메타프로방스. <담양군 제공>

산타와 나누는 담양 겨울이야기

31일까지 메타프로방스 일대서 산타축제

'담양산타축제'가 오는 31일까지 '산타와 나누는 담양 겨울이야기'라는 주제로 담양 원도심과 메타프로방스 일대에서 펼쳐진다.

우선, 군은 대나무를 활용해 대형 대나무트리와 대나무 운수대차를 메시지로 담아낸 경관조명을 만들어 중앙공원을 꾸몄다. 또 가로등을 활용한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도 달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성했다.

담양읍시가지~양각교, 담양문화회관~향교까지 2.5km 구간도 대나무불과 별모양 조명으로 담양의 밤거리에 불을 밝혔다.

메타프로방스에도 크리스마스트리와 산타 포토존 등으로 분위기를 냈고 죽녹원 앞 분수광장과 메타프로방스를 무대로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시부터 길거리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담양군은 특히 오는 23일부터 성탄절인 25일까지 특수효과를 활용한 선물 이벤트를 실시, 지역민들과 축제를 즐길 예정이다.

담양읍 해동주조장도 크리스마스를 맞아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18시까지 산타축제와 연계한 해동겨울음악회를 연다. 매일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담양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담양산타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담양산타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문화회관에서 '제5회 담양송순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만양정 송순(1493~1582)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과 지역문학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돼 87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 결과, 대상작 없이 '백년을 기다린 대나무 꽃'(동화), '담양 대숲향기에 취하다'(시), '대숲에 이는 바람'(소설) 등 3편의 작품을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동화 분야 우수상 수상자인 "...대나무 꽃"은 김덕령 장군과 영웅을 위해 꽃을 피우는 대나무 이야기를 엮어낸 작품으로 문장의 서술이나 이야기 완성도를 높이며 좋은 평가를 끌어냈다.

시 부문 우수작품에 꼽힌 '담양 대숲향기에 취하다'는 담양 전체를 아우르며 시작 소재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작 형상화에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소설 부문에서는 '대숲에 이는 바람'이 담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고증 및 자료 수집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받았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양을 소재로 한 시와 소설 창작 활동 등을 지원하고 담양 다음을 간직한 뮤지컬, 연극 등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문화회관에서 '제5회 담양송순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만양정 송순(1493~1582)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과 지역문학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돼 87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 결과, 대상작 없이 '백년을 기다린 대나무 꽃'(동화), '담양 대숲향기에 취하다'(시), '대숲에 이는 바람'(소설) 등 3편의 작품을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동화 분야 우수상 수상자인 "...대나무 꽃"은 김덕령 장군과 영웅을 위해 꽃을 피우는 대나무 이야기를 엮어낸 작품으로 문장의 서술이나 이야기 완성도를 높이며 좋은 평가를 끌어냈다.

시 부문 우수작품에 꼽힌 '담양 대숲향기에 취하다'는 담양 전체를 아우르며 시작 소재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작 형상화에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소설 부문에서는 '대숲에 이는 바람'이 담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고증 및 자료 수집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받았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양을 소재로 한 시와 소설 창작 활동 등을 지원하고 담양 다음을 간직한 뮤지컬, 연극 등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문화회관에서 '제5회 담양송순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만양정 송순(1493~1582)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과 지역문학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돼 87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화순 국화축제 발전 모색 자문위원·봉사자 간담회

화순군은 최근 '2017 화순 국화향연' 축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7일간의 일정으로 끝난 국화향연 축제와 관련, 추진위원, 자원봉사자 등이 겪었던 축제 소감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 축제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위원들은 고인돌유적지 등 화순의 관광명소와 국화향연 축제를 연계하고 김삿갓 캐릭터를 관광 기념상품으로 개발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양한 먹거리를 확충하는 방안과 축제 성유료화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오리고 붙이고... 내 손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장애인·수험생·초등생 대상
장성농기센터 교육 프로그램

더 멋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성군이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19일 장성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5일부터 5차례에 걸쳐 장애인과 수험생, 초등학생 등을 상대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생활 속 유희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기에 쓸만한 트리 장식법 등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100명 정도를 예상했지만 크리스마스 시즌과 맞물리면서 예상보다 30% 가량 신청자가 늘었다는 게 장성군 설명이다.

농업기술센터측은 지역민들이 보다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종합복지관, 문화교, 공공도서관을 직원들이 찾



농기센터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보고 있는 학생들. <장성군 제공>

아가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트리 장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마

련했는데 일상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기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공·경매 교육안내

저희 공·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주)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경매 실천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
2. 장소 : 본 중개법인 강의실
3. 교육내용 :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경매 과정
4. 대상 : 1) 공인중개사 2)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수강료 및 교재대는 실비로 함
6. 강사